

1. 다음의 시를 읽고 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이 이미 칠십을 넘었고  
지위 또한 정승에 올랐네.  
이제는 시 짓는 일 벗을 만한건만  
어찌해서 그만두지 못하는가.  
아침에 귀뚜라미처럼 읊조리고  
저녁엔 올빼미인 양 노래하네.  
어찌할 수 없는 시마(詩魔)란 놈  
아침저녁으로 몰래 따라다니며  
한번 붙으면 잠시도 놓아주지 않아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네.  
날이면 날마다 심간(心肝)을 깎아내  
몇 편의 시를 쥐어 짜내니  
기름기와 진액은 다 빠지고  
살도 또한 남아있지 않다오.  
뼈만 남아 괴롭게 읊조리니  
이 모양 참으로 우습건만  
깜짝 놀랄 만한 시를 지어서  
천년 뒤에 남길 것도 없다네.  
손바닥 부비며 혼자 크게 웃다가  
웃음 그치고는 다시 읊조려 본다.  
살고 죽는 것이 여기에 달렸으니  
이 병은 의원도 고치기 어려워라.

-이규보, '시벽(詩癖)'

- ① 화자는 자신을 다소 희화화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
- ② 화자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화자는 시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창조의 보람과 만족감을 맛보고 있어.
- ④ '병'은 '신체적 질병'이라기보다는 '고약한 습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거야.

2.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 찾는 곳은 이태원이다. 여기서 ‘원(院)’이란 이곳이 과거에 여행자들을 위한 휴게소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리원, 조치원 등의 ‘원’도 마찬가지이다. 조선 전기에는 여행자가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휴게소를 ‘원’이라고 불렀다. 1530년에 발간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원은 당시 전국에 무려 1210개나 있었다고 한다.

조선 전기에도 여행자를 위한 편의 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었다. 주요 도로에는 이정표와 역(驛), 원(院)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세워졌다. 10리마다 지명과 거리를 새긴 작은 장승을 세우고, 30리마다 큰 장승을 세워 길을 표시했다. 그리고 큰 장승이 있는 곳에는 역과 원을 설치했다. 주요 도로마다 30리에 하나씩 원이 설치되다 보니, 전국적으로 1210개나 될 정도로 많아진 것이다.

역이 국가의 명령이나 공문서, 중요한 군사 정보의 전달,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迎送)과 접대 등을 위해 마련된 교통 통신 기관이었다면, 원은 그런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공공 여관이었다. 원은 주로 공공 업무를 위한 여관이었지만 민간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원은 정부에서 운영했기 때문에 재원도 정부에서 마련했는데, 주요 도로인 대로와 중로, 소로 등에 설치된 원에는 각각 원위전(院位田)이라는 땅을 주어 운영 경비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렇다면 누가 원을 운영했을까? 역에는 종육품 관리인 찰방(察訪)이 파견되어 여러 개의 역을 관리 하며 역리와 역노비를 감독했지만, 원에는 정부가 일일이 관리를 파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로변에 위치한 원에는 다섯 가구, 중로에는 세 가구, 소로에는 두 가구를 원주(院主)로 임명했다. 원주는 승려, 향리, 지방 관리 등이었는데 원을 운영하는 대신 각종 잡역에서 제외시켜 주었다.

조선 전기에는 원 이외에 여행자를 위한 휴게 시설이 따로 없었으므로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은 여염집 대문 앞에서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 숙식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점사(店舍)라는 민간 주막이나 여관이 생기고, 관리들도 지방 관리의 대접을 받아 원의 이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원의 역할은 점차 사라지고 지명에 그 흔적만 남게 되었다.

- ① 여행자는 작은 장승 두 개를 지나 10리만 더 가면 ‘역(驛)’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 ② ‘원(院)’을 운영하는 승려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각종 잡역에서 빠졌을 것이다.
- ③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관리들은 ‘역(驛)’에서 그들을 맞이하거나 보냈을 것이다.
- ④ 민간인 여행자들도 자유롭게 ‘원(院)’에서 숙식을 해결했을 것이다.

3. 다음 중 외래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카톨릭(Catholic), 앙코르(encore), 소시지(sausage)
- ② 복서(boxer), 녹다운(knockdown), 할로윈(Halloween)
- ③ 다이نام릭(dynamic), 스펀지(sponge), 브러쉬(brush)
- ④ 레미콘(remicon), 마니아(mania), 바비큐(barbecue)

4. 다음 낱말을 국어사전의 올림말(표제어)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배열하면?

ㄱ. 웬일    ㄴ. 왜곡    ㄷ. 와전    ㄹ. 외가
----------------------------------

- ① ㄷ > ㄱ > ㄴ > ㄹ
- ② ㄷ > ㄴ > ㄱ > ㄹ
- ③ ㄷ > ㄴ > ㄹ > ㄱ
- ④ ㄷ > ㄹ > ㄴ > ㄱ